

12일 Market Index			
코스피	5522.27	코스닥	1125.99
	(+167.78)		(+11.12)
금리 (국고채 5년)	3.154	환율 (원·달러)	1440.35
	(-0.046)		(-9.75)

다주택자
5월9일 전 가계약시
양도세 증가 유예
04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勝… 경영 리스크 해소

법원 “상속협의 기망행위 없어”
세 모녀, 상속회복 청구소송 패소
LG 지배구조 불확실성 해소 전망
원고측 항소 가능성은 열려있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관련기사 4면>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000억원 규모다.
세 모녀측은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데 유언이 있었던 것을



설 앞두고 북적이는 전통시장 설 연휴를 나흘 앞둔 12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로 아는 등 정확한 이해와 동의없는 상태에서 상속협의를 진행했다며 전 회장 별세 4년여 만에 소송을 냈다.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으니 통상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비롯해 가족사회의

합의등을 토대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LG 소송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구광모 회장은 상속 재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털어내고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

권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만약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지분 재분할이 이뤄졌다면 (주)LG 지분을 하락으로 경영권 불안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각 판결로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원고 측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코스피 5500 돌파 ‘18만전자’도 성큼

코스피가 12일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뚫었다. 삼성전자는 ‘17만전자’ (주가 17만원)에 이름을 올리며, 시가총액 1000조원 고지를 다시 밟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3.13% 오른 5522.27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 투자자가 약 3조원 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 고용 지표 수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가운데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렸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이 10% 가까이 상승하는 등 미국 반도체주가 급등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한국시장으로 전해졌다.

코스피 3.13% 오른 5522.27
삼성·SK 반도체株 투톱 ‘날개’
전문가들 “코스피 6000 기대”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44% 오른 17만8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시총은 1057조2473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기준으로는 약 16위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3.26% 상승한 88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도체 랠리는 더 이어질 전망이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각각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며 한국 기업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코스피 6000을 점친다.

JP모건은 한국 주식 전략 보고서에서 코스피 지수가 ‘기본 시나리오’에서 6000, ‘강세 시나리오’에서 7500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반도체 외에도 방산·조선업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 믿음도 강하다. ‘코스피 5000’ 공약을 전면에 내건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6월 취임 이후 주가 조작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히는 등 주식 시장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 2차 상법개정에 이어 2월 임시 국회에서 중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9원 내린 1440.2원 오전장(오후 3시30분)을 마쳤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전자, HBM4 세계 첫 양산 출하 ‘반도체 왕좌 탈환’

최선단 공정 1c D램 선제적 도입
양산 초기부터 안정적 수율 확보

삼성전자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하며 시장 주도권 탈환에 나섰다. 그간 HBM3E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밀렸던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 시장에서 선제 양산에 성공하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양산 출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회사는 HBM4 개발 착수 단계부터 JEDEC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제품에는 최선단 공정 1c D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재설계 없이 양산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율과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메모리개발담당 황상준 부사장은 “삼성전자 HBM4는 기존에 검



삼성전자 HBM4 제품. /삼성전자

증된 공정을 적용하던 전례를 깨고 1c D램 및 파운드리 4나노와 같은 최선단 공정을 적용했다”며 “공정 경쟁력과 설계 개선을 통해 성능 확장을 위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고객의 성능 향상 요구를 적기에 충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HBM4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1c D램을 적용하는 한편 베이스 다이의 특성을 고려해 성능과 전력 효율 측면에서 유리한 4나노 공정을 적용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 HBM4는 JEDEC 업계 표준인 8Gbps를 약 46% 상회하는

11.7Gbps의 동작 속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HBM4 성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전작 HBM3E의 최대 핀 속도인 9.6Gbps 대비 약 1.22배 향상된 수치이며 최대 13Gbps까지 구현이 가능하다. 삼성전자의 HBM4는 단일 스택 기준 총 메모리 대역폭을 전작 HBM3E 대비 약 2.7배 향상된 최대 3.3TB/s 수준으로 끌어올려, 고객사 요구 수준인 3.0TB/s를 상회하는 성능을 확보했다.
삼성전자의 HBM4는 12단 적층 기술을 통해 24GB~36GB의 용량을 제공하며, 고객사의 제품 일정에 맞춰 16단 적층 기술을 적용해 최대 48GB까지 용량을 확장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데이터 전송 I/O(Input/Output) 핀 수가 1024개에서 2048개로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 소모와 열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어 다이에 저전력 설계 기술을 적용했다.
또한 TSV 데이터 송수신 저전압 설

계 기술 적용과 전력 분배 네트워크(PDN) 최적화를 통해 전 세대 대비 에너지 효율을 약 40% 개선했으며, 열 저항 특성은 약 10%, 방열 특성은 약 30% 향상시켰다.
삼성전자의 HBM4는 데이터센터 환경에 최적화된 최고 수준의 성능과 안정적인 신뢰성을 동시에 갖췄으며, 고객사는 삼성전자의 HBM4를 통해 GPU 연산 성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서버 데이터센터 단위의 전력 소모와 냉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26년 HBM 매출이 2025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HBM4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HBM4에 이어 HBM4E도 준비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샘플 출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커스텀HBM도 2027년부터 고객사별 요구에 맞춰 순차 샘플링을 시작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한줄뉴스



▲국정원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들어간 것으로 판단”
▲안철수 “매물 압박하면서 대출은 공공…현금 자산가들만 기회”
/사진 뉴시스

▲송언석 “민생 버리고 반헌법적 입법 쿠데타 선택한 민주당에 강력 유감”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선언…“위풍당당 대구 시대 열겠다”

▲하태경 “정치인 아닌 시민 안희정에게겐 두 번째 기회 줘야”
▲국방부, 설 연휴 긴급상황 대비 장비 460대 지원…군병원 24시간 운영